FX Market Daily

2024-08-21

전일동향

전일대비 9.80원 하락한 1,360.60원에 마감

2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0.80원 하락한 1,333.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달러-원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20원 하락한 1,331.80원에 개장했다. 간밤 달러 약세를 추종해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장 초반 엔화 강세와 중국의 대출금리 동결에 의한 위안화 강세에 환율은 낙폭을 확대했다.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로 환율이 상승세를 타기도 했으나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으로 1,334원대 안팎으로 횡보하며, 1,333.2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1.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6.3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31.80	1336.30	1325.20	1333.20	1332.00
엔화	909.79	918.15	904.42	917.67	-
유로화	1478.27	1484.12	1468.98	1483.34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88	-6.27	-13.77	-25.33
결제환율(수입)	-0.49	-5.39	-11.97	-21.8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약달러 영향에... 1,32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7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33.20) 대비 5.50원 하락한 1,325.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약달러 흐름에 하락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 매파 성향의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낮아지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면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비농업 고용 벤치마크 수정 발표를 앞두고 고용 증가 폭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 2년물 8.20bp, 10년물 6.40bp 하락해 각각 3.988%, 3.809%를 기록했다. 또한 잭슨홀 프라이싱이라 불리는 연준 통화정책 피벗 배팅이 달러 약세 기조를 만들어냈다. 한편 엔화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 및 BOJ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상승하였다. 달러 약세를 쫓는 역외 숏플레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금일 환율은 하락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추격매도 가능성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 및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등은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890.12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50원↓
- ■ 美 다우지수 : 40834.97, -61.56p(-0.15%)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0.11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74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